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11. 1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**英, 나이지리아 연방수도지구(FCT) 여행자제 권고 해제**
 - 11.7 英 정부는 지난달 말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를 관할하는 FCT에 내려졌던 여행자제 권고는 해제하였으나, 보코하람·ISWAP 등 테러단체의 공격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
 - * 영국은 지난 10.23 同 지역 공공장소 방문을 포함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
- **튀르키예, 이스탄불 폭탄테러 발생**
 - 11.13 언론은 이스탄불市 번화가에서 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당했으며,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행위라고 규정하고 사건 수습 및 배후를 조사중이라고 보도
 - * 사건 직후 배후를 자처한 조직은 없으나, ISIS 또는 쿠르드계 무장조직의 연계 가능성 제기

미주

- **美 뉴욕법원, 공원 등 일부 공공장소 총기휴대 허용**
 - 11.7 뉴욕법원은 지난 7월 뉴욕주가 제정한 「은폐 총기휴대 개선법」上 '총기휴대 제한구역'이 너무 포괄적으로 지정되어 헌법상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공원 등 일부 공공장소에서 법령 시행 중단 판결
 - * 판결요지 : △ 총기휴대 제한(유지) : 타임스퀘어·도서관·보육원 등 △ 총기휴대 허용(변경) : 공원·정신병원·예배당·동물원·영화관 등
- **美 법원, 교회 폭탄테러 모의 ISIS 추종자 중형 선고**
 - 11.8 법원은 폭발물 제작 방법·탈출 경로를 다른 ISIS 추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등 피츠버그市 소재 교회에 폭탄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시리아 출신 난민에 대해 징역 17년 선고
 - * 同人은 법정에서 '더이상 ISIS를 지지하지 않는다'고 반박

아 · 태평양

- 태국, 'APEC 정상회의' 대비 '최고수위' 경계태세
 - 11.9 태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(방콕, 18~19간) 개최를 앞두고, 마약·불법총기에 대한 대대적 단속*과 행사장 주변 경찰 2만5천여명을 투입하는 등 최고의 경계태세 유지
 - * 태국 경찰은 10.10~11.8까지 약 한달간 마약·불법총기 등 소지자 6만2천여명 (마약 4만3,027명, 총기·폭발물·탄약 1만450명 등) 체포(미등록총기 5,345점 압수)
- 인도, 제3차 'No Money For Terror' 회의 개최
 - 11.13 인도 내무부는 2일간(11.18~19) 일정으로 제3차 'No Money For Terror'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 테러자금 조달의 기술적·법적·규제적·협력적 측면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
 - * 또한 △ 테러 및 자금 조달의 글로벌 동향 △ 테러 목적 공식·비공식 자금 채널 △ 新기술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부언

중 동

- 이란, 이라크 북부 쿠르드 분리독립 조직 거점 공습
 - 11.14 언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북부 코이신자크 부근의 반이란 분리독립 조직 '이란 쿠르드민주당(KDPI)' 거점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여, 최소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
 - * 이란 정부는 지난 9월 히잡 미착용으로 인해 체포된 후 사망한 「마흐사 아미니」가 쿠르드계 이란인이라는 점을 들어 반정부 시위가 쿠르드 조직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

아프리카

- 동아프리카입법의회(EALA), 테러·인신매매 방지 대책 마련
 - 11.11 EALA는 동아프리카 일대 테러활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공동체 회담을 개최, 同 지역에서의 테러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련 사법·제도·정책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
 - * 알 샤바브·ADF·FDLR과 같은 테러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평가

영국, 여성병원 택시 폭탄 테러

- '21.11.14. 영국 리버풀市 소재 여성병원 앞에서 택시가 폭발하면서, 차량에 승차해있던 테러범 「엔초 알메니」 (32)가 폭사
- 택시 기사는 범인이 옷에 반짝이는 물체를 붙인 채로 탑승하고, 목적지를 리버풀 대성당에서 병원으로 변경한 점 등을 수상하게 인식
 - 병원 도착 후 기사는 폭발 발생 직전 차량에서 내려 택시 문을 잠그고 탈출하였으나, 차량 안에 갇힌 테러범은 사망
 - 「존슨」 총리는 기사의 용기 있고 침착한 행동에 감사를 표시
- 경찰은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수사 결과를 발표
 - 시리아·이라크 지역 출신 난민으로 7년 전 영국에 입국한 범인은 '외로운 늑대'로 추정되며, 최초 리버풀 대성당에서의 영령기념일 (현충일) 행사를 공격하려 했으나, 차량 정체로 목적지를 병원으로 변경
 - 또한, 범인의 사제폭탄 제조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4명을 체포하였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석방
- 합동테러분석센터(JTAC)는 테러경보를 '상당함'에서 '심각'으로 상향
 - * 낮음(Low) - 보통(Moderate) - 상당함(Substantial) - 심각(Severe) - 위급(Critical) 順

< 외로운 늑대(Lone Wolf) >

- (정의) 정부 또는 특정 조직에 대한 반감으로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 등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배후세력 없는 자생적 테러리스트
- (유래) 본래 1996년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 키즐랴르를 기습한 체첸반군을 일컫는 말이었으나, 이후 美 극우 인종주의자 앨릭스 커티스가 백인 우월주의자 선동 과정에서 同 용어를 사용하며 '자생적 테러범'의 의미로 변화
- (특징) △ 외부지원 없이 스스로 테러를 준비·실행 △ 은밀한 독자적 공격 방식과 계획에 따른 사전 사건 징후포착 곤란 △ 주로 '소프트타겟' 대상 '로테크' 공격 자행